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공심으로 살아야 생사 걸리지 않아

영원한 오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 현재도 공한 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더군다나 경칩이라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고 하는 날이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다 눈 뜨고 귀 뜨고 입 뜨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사람들 사는 전부 하나하나가 에누리가 하나도 없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삶도 또 원력도 그렇게 전부 끼리끼리 가지고 나오죠. 요만큼도 에누리 없이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생이다 공심이다 공체다 공용이다 공식이다 하는 그 뜻을 새삼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렵게 생각해서 넓게 보지 마시고 개개인의 나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내 몸안에 다 들어 있는데 내 세포가 모두 법망입니다. 타의에서 들어오고 자의에서 나오고 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죠. 이게 바로 내 몸체 하나를 놓고도 공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하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법망

그리고 이 네 가지가 한데 합쳐진 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이 공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 나간다 이럴 때, 내가 늘 말하죠. 둘로 보지 말라구요. 또 공생이니깐 내 생도 둘로 보지 말라. 이것도 즉 말하자면 생사가 걸린 문젭니다. 공생으로 살아야 생사에 걸리질 않는다. 공심으로 살아야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를 안다. 또 공체로 살아야 사람없이 사랑할 수 있다, 착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부 공용을 하고 있다. 이 몸뚱이 하나 속에서 모두 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공용, 듣는 것도 공용, 말하는 것도 공심으로서 공용하는 겁니다. 음죽거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공용으로서 음죽거리고 있기 때문에 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가 그거를 따지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그게 한 몸뚱이가 공생이며 공용 아니냐, 그러니까 물 한 컵을 먹어도 내가 먹었다는게 없이 먹었다 이 얘기죠.

늘 이런 소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붕지가 적으면 뭘 하고 크면 뭘 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공기주머니라고 한다면 이 몸뚱이 하나도 주머니입니다. 이 몸체 안에서 생명이 나가면 죽듯이 이 지구안에서도 생명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건 모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고 내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공생인줄 알고 공용으로 공식하는 거를 알면 바로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하고 못한다 이런 것도 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이겁니다. 잘하고 못한다 또는 강도다 선지식이다. 또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건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둘로 보지 않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선 환히 보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통해서 돌아가니까요. 물 속에서 노는 고기한테도 마음을 통하려고 한다면 통하고, 나무하고도 통하려고 한다면 통하죠. 그러기 때문에 일체 만물하고도 더불어 둘 아니게 통한다. 그러면 선지식과 중생은 따로냐? 따로가 아니다. 우리 몸을 봐라. 몸체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형성시키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불성이라고도 하고 별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정자 난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한데 합쳐져야 임신이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죠. 생명체가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똑같은데 만약 미생물로 살았다면 그 미생물의 습성이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쉽게 화하질 못하는 것 뿐이죠. 몰라서 화하지 못하는 그 까닭에 모습을 또 그렇게 가지고 나오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살게끔 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가 못살게 하고 안하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와서 권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누가 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만한 거 하나도 살아나가는데 에누리가 없다. 그러니 말없이 채찍질을 하고 가르치는 일이, 사람을 진짜 사람 아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구나,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림 · 최주현

물고기 · 나무 등 일체 만물만생과도 마음으로 둘 아니게 통할 수 있어요

항상 인간의 내부는 생각지 않아요. 외부의 것만 생각하죠. 이 몸뚱이만 생각하는데 무게와 에너지로 따진다면, 이 안 내부가 무게가 많다면 겉의 물질인 이 껍데기는 한 응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몸뚱이 뿐만 아니라 일체 지구도 그렇고 은하계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에누리 없이 사는 인생

인간에게 세포가 있다면 인간의 세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망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땅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지구에도 있고 태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전부를 안다. 하나에서 지혜가 터지면 둥글게 더하고 덜함도 없는 도리를 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배우든 부처님 말씀 한 마디만 알아들어도 그것은 다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찰은 많지만 사람이 없다면 부처가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 소릴 가끔 하죠. 부처님은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셔서 미생물 같은 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 내면에 있는 뜻은 뭐냐. 그 말씀은 바로 부처님은 미생물로 화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화할 수도 있고, 찰나찰나 그냥 모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넘어가면서 그 노릇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일거수 일투족 하나도 버림없이 그렇게 스스로 작용이 되신단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깔보고 미워할게 아니라 저절로 그 공도리를 둘 아니게 알 수 있다면 거지도 미워하는 법이 없고 그냥 저절로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한마음이 되어 줄 수 있죠. 이 세상 도리를 알려면 얼마만큼 많이 극복을 하고 훨훨 털고 일어나야 될지 모르는데 그저 조그만거 가지고 네가 틀리다 내가 옳다 하고 따지다 보면 아마 몇생을 죽었다 또 태어나도 깨우치질 못하고 연방 이 수레바퀴에 말려서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어 올라 온 자기의 장본인이니깐요.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구에 딴 혹성이 부딪치게끔 달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그걸 부딪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생명들이 다 살고 이롭겠습니까? 달마대사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큰 구렁이가 죽어서 썩고 있으니 그 냄새가 진동하여 아무도 그 마을에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치우려니까 그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멀리까지 치우고 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진짜로만 믿고 하시거나 찰나찰나 둘 아니게 돌아가는 도리만 아신다면 그 혹성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무 일도 없는데다 옮겨 놓고 지구를 살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샛별이란 말입니다. 별성이라고 하기 보다 불성이라고 할까요. 불성.

4대로부터 생명 탄생

우리가 때로는 지수화풍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에 어디서 생명이 생겨 나왔나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흙과 물. 이 세 가지가 뭉쳐서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 속에서 원기가 생겨서 생명이 생기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거를 무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수화풍 아니고선 생겨난 게 없거든요. 어떤 물질이든지 지수화풍으로 생겨나서 다시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대고통을 받죠. 그것으로 태어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은하계에 별성이라 하더라도 바로 자기가 은하계예요. 생략해서 말하지만 자기 하나가 있다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칠성에서 합니다. 이 사람 관리라는 것이 생명을 주고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게끔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거죠. 그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몸뚱이 속이 암흑이라고 해도, 그 암흑 속에는 에너지가 가득해서 연료가 많은데 껍데기는 한줌 밖에 안된다. 은하계든지, 어느 부분에 그 캄캄한 암흑 속이든지 전부 에너지를 뒷받침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일체 만법을 유동성있게 관리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면 암흑과 밝음이 둘이냐,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둘이 아니게끔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밝음을 가져 오는 거니깐요.

우리가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다 이런 게 있죠. 이 뜻을 과학자 여러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죽거리고 모든 걸 생각으로 기억해 내고, 왜 이렇게 어둡게 살고 왜 이렇게 밝게 사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 이런 걸 말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2-七三七-八八八一

금선학회 수련회

慧命經의 원저자 유화양 禪師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 수행비전"
"영보통 지능내공법" 한국 최초 공개
"건강없는 道는 없다."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

유화양선사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찾아 중국전역을 헤매시다 호운 老師와 오충허 眞人으로부터 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法輪과 천백억 化神의 실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아 진리와 하나되는 경계를 몸소 이루게한 최상승 수련비전

영보필법은 1년을 수행하면 1년의 증험이, 3년을 수행하면 3년의 증험이, 그리고 10년을 수행하여 大成에 이르게 하는 "漸修漸進 수행법" 이며 중.하근기의 중생이라도 영보필법의 수련체계(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性命雙修 수행법)로 꾸준히 수행하면 반듯이 최상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修眞體系입니다.
기존의 참선수련법으로 수행에 진전이 없으신 분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수행자, 보살님들께 드리는 "인체와 마음"을 재생 시키는 유일한 代案입니다.

■ 수련내용
1)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법
2) 북두칠성과 인체의 기운을 상응시켜 천체우주로 代를 확대해가는 법
3)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性命雙修)하여 본성품에 이르는 법
4) 慧命(法眼, 佛眼, 天眼)수련을 통하여 法界 진리를 깨닫는 법

■ 수련의 효과
1) 정신적 : 불면증, 우울증, 각종스트레스, 노이로제, 화병 등
2) 육체적 : 만성피로, 변비, 만성위장병, 심장질환, 신장병, 비만, 고혈압, 간경화, 오장의 부조화, 냉병 등
3) 수 행 : 참선수행시 졸음방지 및 잡념제거, 삼매체험(字我 · 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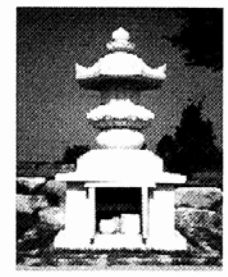
■ 수련일정 및 장소
1. 일시 : 2000년 4월 25일(화) 29일(토)
25 28/PM 7:30 9:30, 29(토)/PM 3:00
2. 장소 : 세계금선학회 본원(사당역 부근)
3. 문의 : 02)512-7057, 7233(팩스 겸용)

세 계 금 선 학 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 6층
(http://www.myhome.sinbiro.com/~kumsunac)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동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 584-6674~6 FAX : 0417) 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